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지음 /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2016. 12. 10(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

## [ 정의란 무엇인가 ]

###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장애를 가진 응원단원 '캘리'의 방출 요구에 대한 스토리

질문  
2가지

① 공정성에 대한 것: 응원단원 자격을 갖추려면? (엄격한 체조 VS 장애를 감안함)

- 응원단원 결정의 필수 요소, 부수적 요소

② 영예와 분노에 관한 것: 영예의 가치 위협? (체조실력은 필수 요소인가?)

- 응원단원의 역할에 필요한 미덕

2가지 질문의 연관성에 주목!

- 단원의 자리를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응원의 본질, 목적을 결정해야 함.
-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어떤 자질이 영예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에는 도구적 목적(팀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어떠한 우수성과 미덕에 대한 칭송)도 있음을 알려줌.

#### 정의와 텔로스, 영예의 관계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 2가지>

①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함.

\*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함.  
(telos: 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

② 정의는 영예를 안겨 주는 것임.

\*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 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임.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것의 영향과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음.

#### 목적론적 사고의 예: 테니스 코트 사용 권리와 『곰돌이 푸』

\* 목적론적 추론은 정의에 대해 사유하는 낯선 방식이지만, 일리가 있음. ('푸'의 생각의 흐름은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

#### 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 \* 대학의 텔로스는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음. (학문발전 촉진=성적 우선, 공익적 목표=리더십 능력 포함)
- \* 대학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은 영예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어떤 미덕과 우수성에 영예와 포상?)

####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 \* 어떤 목적에도 중립적인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임.
- \*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데 있음.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

####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 오직 정치 결사체를 통해서만 언어(선을 식별하고 고찰하는 매체)라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발휘 한다고 주장함.
- \* 폴리스에 살 때에만 비로소 본성을 실현함. (고립되어 자족할 수 없음. 언어능력과 도덕적 사유 능력을 계발할 수 없기 때문임)

#### 행동으로 배우는 미덕

- \* 미덕의 습득은 연습을 해야 함. (행의 중요성 /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인 "실천적 지혜"의 필요성)

#### 정치와 좋은 삶(정치는 좋은 삶의 필수)

- \*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음. (시민 =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
- ▶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적합성의 문제(2가지 요건 충족 필요: ①노예가 필요하고, ②노예의 본성을 가진자가 있어야 함)  
-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그의 정치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가치가 있음.

#### '케이지 마틴'의 골프 카트 논쟁(사례)

- \*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흔히 사회 기관의 목적, 그 기관이 배분하는 재화, 그리고 그 기관이 포상하고 영예를 수여하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 이러한 문제에 최대한 중립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한 논쟁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임.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 📖 Key Word 📖

공정성, 영예, 분노, 목적론, 필수 요소, 부수적 요소, 본질과 목적, 영예의 가치, 전통적 미덕, 정의, 텔로스, 분배 기준, 분배 대상, 분배받을 사람, 정치, 좋은 시민, 공동선, 좋은 삶, 습관, 니코마스 윤리학, 실천적 지혜, 폴리스의 법, 적합성

#### ☞ 뇌성마비 응원단원 '캘리 스마트' 이야기 ☞

#### ● 뇌성마비인 '캘리'의 응원단원 활동에 대한 찬, 반을 논할 때 2가지 질문이 생김.

⇒ 2가지 질문: ①공정성과 ②분노에 관한 것.

##### ① 공정성에 관한 질문

- 응원단 자격을 갖추려면 엄격한 체조훈련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요구는 '캘리'의 장애를 감안할 때, 부당할까?
- 이것에 답을 위한 한 가지 방법: 차별 금지 원칙 적용(장애가 있어도 응원단원 가능)
- 하지만, 차별 금지 적용도 큰 도움이 못 됨. 논쟁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
- 응원단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응원단원 활동 반대 주장

- 뛰어난 응원단원이 되려면 공중회전, 다리 일자 뻗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 이것은 전통적으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대표적 기술이기 때문임.

⇒ 응원단원 활동 찬성 주장

- 위의 반대 주장은 응원단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혼동한 것.
- 응원단의 진짜 목적은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임.
- '캘리'가 그렇게 한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다고 봄.(자격 有)
- 따라서, 자격을 결정하려면, 응원의 필수 요소 & 부수적 요소를 규정해야함.

##### ② 영예와 분노에 관한 질문

- 장애에도 불구하고 '캘리'가 응원단의 역할에 필요한 미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응원단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단원이 누리는 영예의 가치가 다소 위협받을 수 있음.
- 그렇다면, 단원이 보여주는 체조실력은 더 이상 뛰어난 응원 기술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단지 관중의 흥을 돋우는 볼거리 중 하나일 뿐임.

⇒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너그럽지 못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셈임.

- 한 때 그 목적과 그에 수여되는 영예가 정해져 있다고 여겨졌던 사회적 행위가 이제 '캘리' 덕분에 그 목적과 영예를 새롭게 정의해야 했음. '캘리'가 응원단원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영예와 분노에 대한 질문의 연관성에 주목!**

- ⇒ 단원 자리를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본질, 목적을 결정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필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없음)
- ⇒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는 결국 어떤 자질이 영예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 ⇒ 영원의 목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미덕이 인정과 포상의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음.

● **이 일화가 알려주는 것.**

- ⇒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에는 도구적 목적(팀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어떠한 우수성과 미덕에 대한 칭송)도 있음을 알려줌.
- ⇒ 기존 단원 부모들은 딸들이 갖춘, 응원단원의 전통적 미덕이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임.

■ **정의와 ‘텔로스’, 영예의 관계**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 2가지**

①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함.

-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를 이해해야함.

② 정의는 영예를 안겨 주는 것임.

-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 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임.

-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것의 영향과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음.

● **근, 현대의 정의론**

- ⇒ 공정성과 권리의 문제를 영예, 미덕, 도덕적 가치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함.
- ⇒ 여러 목적에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게 하려 함.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함.
- ⇒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할 몫은 무엇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 ⇒ 정의의 2가지 요소: “분배대상”과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 임.
- ⇒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대상들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함.
- ⇒ 어떤 면에서의 평등인가?
  -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와 관련된 미덕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음.
  - 예시) 플루트 배분: 누가 플루트를 가져야 할까? (목적은 가장 잘 실현할...)
    -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고 대답.
    - 정의는 능력에 따라 연관된 탁월성에 따라 차별된다고 생각함.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된다면 부당할 것임)

### ●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목적론적 추론)

- ⇒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음악가에게 준다면 최고의 음악을 빚어내는 긍정효과로 얻게 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도 실현될 것 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유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배분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teleological - 목적, 목표를 뜻하는 그리스어 'telos'에서 나옴)추론의 예 임.
- ⇒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살펴야한다고 주장했음.

## ■ 목적론적 사고의 예: 테니스 코트 사용 권리와 『곰돌이 푸』 ■

### ● 목적론적 추론은 정의에 대해 사유하는 낯선 방식이지만, 일리가 있음

- ⇒ 예시:
  - 테니스 코트 사용권 배분(돈, 교수, 선수)
  -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경매(갑부 '이자크 펄만'의 거실 전시: 용도 낭비, 연주를 위해 만들어짐)
- ⇒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 보다 목적론이 더 흔했음.
  - 자연에는 의미 있는 질서가 있다고 여김, 불이 위로 솟는 이유(본래 자리인 하늘에 닿고자...)
  -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 더 이상 질서로 인식되지 않음.(물리 법칙 지배, 기계론적 사고의 출현)
- ⇒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질서 있는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은 여전히 있음.
  - 『곰돌이 푸』 이야기: 숲 속에 참나무 꼭대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꿀벌이 있음→ 꿀을 만들기 위해서임→ 꿀을 만드는데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올라감.
  - '푸'의 생각의 흐름은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

## ■ 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

### ● 대학의 '텔로스'는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대학이 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 학업 성취 가능성 우선함.
- ⇒ 대학이 사회의 공익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 리더십 능력도 기준에 포함해야함.
- ⇒ 적절한 입학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텔로스'를 가려낼 일이 필요해 보임.  
(대학 입학문제에 관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을 끌어냄)

### ● 대학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은 영예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 ⇒ 어떤 미덕과 우수성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주어야 할까?
  - 학문적 탁월성만 칭송, 포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 소수집단 우대 정책 거부!
  - 어떤 공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 소수집단 우대 정책 수용!
- ⇒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는 대개 사회 기관의 목적, 즉 '텔로스'에 관한 논의이며, 이러한 논의에는 사회기관들이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들이 반영된다는 주장임.
- ⇒ 활동의 '텔로스', 즉 목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 기관의 핵심 본질은 한 번에 정해지고 나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의견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님.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 기관의 목적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 ⇒ 영예와 미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논의에서 이 질문에 일관된 답을 제시함.

■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의 정의

- ⇒ 오늘날 분배의 정의에 관한 토론은 주로 소득, 부, 기회의 분배에 초점을 맞춤.
-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의 정의는 대개 돈이 아니라, 공직과 영예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였음.(누가 통치권을 쥐어야 하는가? 정치권력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 ⇒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모두 차별적임을 지적함.
- ⇒ 문제는 '어떤 차별이 정당한가?'임. → 그 답은 해당 활동의 목적에 달렸다고 보았음.

● 정치의 목적, 즉 '텔로스'부터 물어야 함

- ⇒ 정치적 결사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정치적 결사체마다 서로 다른 문제에 초점을 둠)
  -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다소 제한적인 플루트의 목적(연주), 대학의 목적(교육)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름. 정치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 미리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임. 또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위험도 있음.
- ⇒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에는 개인의 자유를 배려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게 만드는 절차로 여김.
  -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음.

● 두 주요 세력을 비판함.(과두제 정치가들, 민주주의자들)

- ⇒ 서로 편파적인 주장을 함.(두 집단 모두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과장된 요구를 함)
  - 과두제 정치가: 자신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주의자들(다수결주의자): 자유 신분이 시민권과 정치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거부함)
- ⇒ 모두 정치 결사체의 최고 목적을 간과함.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

- ⇒ 어떤 목적에도 종립적인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임.(선을 장려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함)
-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임.
- ⇒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임.
- ⇒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데 있음.
- ⇒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임.
  - NATO, NAFTA, WTO 등과 같은 조직과 협약은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둘 뿐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는 않음.(구성원의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에 무관심)
- ⇒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함.
  -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결사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고민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임.(대상의 목적과 분배의 적절한 방법)
- ⇒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 인정과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임.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의미는 어느 정도는 시민의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주기 위함이기 때문임)

## ■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 ●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정치 참여를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 ⇒ 오늘날 분배의 정의에 관한 토론은 주로 소득, 부, 기회의 분배에 초점을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오늘날 우리는 정치를 필요악으로 여김)
- ⇒ 왜 정치 참여 없이는 훌륭하고 미덕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없을까?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여겼는데, 우리 본성에서 답을 찾음.
  - 우리는 '폴리스'에 살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만이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발현함.
  - 우리는 오직 정치 결사체를 통해서만 언어(선을 식별하고 고찰하는 매체)라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발휘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음.
- (∵ 폴리스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부정의를 분별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임)
- ⇒ '폴리스'에 살 때에만 비로소 본성을 실현함.
- (고립되어 자족할 수 없음. 언어능력과 도덕적 사유 능력을 계발할 수 없기 때문임)

### ● 왜 유독 정치에서만 언어력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
  - 미덕의 습득이 시민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보여줌.
  - 도덕적 삶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고통의 총합을 넘어서 쾌락이 극대화된 상태라는 공리주의적 행복이 아님.
- ⇒ 덕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것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임.
- ⇒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며, "미덕에 부합하는 영혼의 활동"임.
- ⇒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에서, 철학 수업에서, 혹은 윤리에 관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용하면서 건전한 도덕 철학을 배우는 식으로는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함.
- ⇒ 미덕은 행동으로 배우게 되는 것임.(무엇보다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

## ■ 행동으로 배우는 미덕 ■

### ● 미덕의 습득은 연습을 해야 함

- ⇒ 직접 연습하지 않고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 어떻게든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법의 1차 목표)
  - 좋은 인격 형성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임.
- ⇒ 도덕 교육은 규칙을 펴트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을 기르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임.
  - (기계적인 행동으로 간주했다는 뜻은 아님)
- ⇒ 습관은 도덕 교육의 첫걸음
  - (예: 감사의 편지를 쓰는 습관이 사라진 것에 유감. 감사의 편지를 자주 쓰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낌)
- ⇒ 미덕이 깃든 행동을 하다 보면 미덕을 갖춰 행동하는 기질이 형성됨.(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 ⇒ 흔히 도덕적 행동이란 규율,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보지만, 올바른 규칙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수도 있음.
- ⇒ 도덕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
- ⇒ 중요 포인트(5알):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정도로, 알맞은 때, 알맞은 동기를 가지고, 알맞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임.

### ● '실천적 지혜'의 필요성

- ⇒ 습관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도덕적 미덕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음.
- ⇒ 새로운 상황은 늘 생기기 마련,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습관이 적절한지 알아야 함.
- ⇒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임.
  -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해야함. 실천과 관련된 것이고, 실천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선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 이성적이고 진실한 상태"라고 규정)
- ⇒ 실천적 지혜는 정치적인 면이 내재된 도덕적 미덕임.
  - 주어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선을 찾고자 하는 노력임.

## ■ 정치와 좋은 삶 ■

### ●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정치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는가?

- ① '폴리스'의 법은 좋은 습관을 심어줌, 좋은 인격을 형성함, 시민의 미덕을 길러줌.
- ② 자칫 휴면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함.

### ●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

- ⇒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는 여러 면에서 경제와 다름.
  - 정치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음.

### ◎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적합성의 문제

- ⇒ 권리 배분이란 사회기관의 '텔로스'를 확인한 뒤 이에 걸맞은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본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작업임.
  - 사람들에게 제 몫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공직과 영예를 주고 본성에 어울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임.

#### ▶ 근현대의 정치론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에 불편함을 느낌

- ⇒ '칸트'부터 '롤스'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정의론자들은 목적론적 사고가 자유와 어울리지 않음을 우려했음. (정의는 적합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봄)
- ⇒ 권리 배분은 각자의 본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게 하는 것임.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논리)

#### ▶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적합성이라는 정의의 개념

- ⇒ 선택과 합의에 근거한 이론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고, 오늘날 역할 배분 방식에 비해 더욱 비판적일 수 있음.

#### ▶ 아리스토텔레스 노예제가 정당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 ① 노예가 필요해야하고, ② 노예의 본성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함.
- ⇒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잡다한 일을 도와야 함)
- ⇒ 하지만 필요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노예제가 정당하려면 본성이 노예의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함.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 자유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예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음. 그런 상황에서는 노예제가 이롭기도하고 정당하기도 함.
  - 실제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 모두 천성적으로 노예이거나 천성적으로 자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원래는 자유인이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노예가 된 사람이 많음)

- ▶ 누가 노예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 ⇒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뤄야 한다면, 그는 노예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임.
      - 본성에 맞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무력이 필요하지 않음.
  - ▶ 자유주의 정치론적 입장
    - ⇒ 노예제는 강요하기 때문에 부당함.
  - ▶ 목적론적 입장
    - ⇒ 노예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부당함.
    - ⇒ 강요는 부당함의 증상이지 부당함의 근거가 아님.
    - ⇒ 노예제의 부당함은 '텔로스'와 적합성이라는 윤리 안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함.
  - ▶ '텔로스'와 적합성이라는 윤리
    - ⇒ 선택과 합의라는 자유주의 윤리보다 직장에서 더 엄격한 정의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함.
    - ⇒ 예시: 닭 가공 공장 작업 라인의 반복적인 업무를 오래해야하는 위험한 직업의 경우.
      - 이런 노동은 정당할까? 부당할까?
        - ☞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 노동력과 임금을 자유롭게 교환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 ☞ '롤스'라고 하면: 양측이 처한 주변 여건이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 시 정당할 것임.
        - ☞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상황에서 합의 했다고 끝이 아니라 본성에 맞아야 함.
- (사람이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경우: 사람의 본성에 맞도록 일을 조정해야 함. 그 일이 부당한 것임.)

## ■ '케이시 마틴'의 골프 카트 논쟁 ■

- 장애를 지닌 프로골프 선수 '케이시 마틴'
  - ⇒ '마틴'은 시합 중에 골프 카트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미국 프로골프협회(PGA)에 요청.
    - 최상의 프로경기에서는 카트 이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그의 요구를 거절함.
  - ⇒ '마틴'은 미국장애인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은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에 따른 의문을 제기함
  - ⇒ 법원은 대상이 되는 활동의 본질을 판단해야 함.(코스를 걷는 것도 골프의 본질인지, 부차적인 것인지)
  - ⇒ 대법원은 골프의 본질을 판단해야 함.
- 대법원의 판결
  - ⇒ 7:2로, 마틴에게 카트 이용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
  - ⇒ 다수 의견을 통해 판사('존 폴 스티븐스')는 골프의 역사 분석을 통해 카트 이용은 골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
  - ⇒ '마틴'의 장애를 보정해 준다고 해서 골프의 본질을 바꾸거나 불공정하게 그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함.
- '앤터닌 스캘리아' 판사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함
  - ⇒ 법원이 골프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함.
  - ⇒ 법원 판결의 밑바탕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식 전제에 의문을 제기함.
    - (경기의 텔로스, 즉 본질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함)
  - ⇒ 그에 따르면 골프의 규칙은 "완전히 임의적이기" 때문에, PGA가 정한 규칙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런저런 규칙이 골프가 테스트하는 기술과 상관 없다고 말할 수 없음.

● '스캘리아'의 주장은 여러 이유로 의심스러움

- ① 그의 주장은 스포츠를 폄하함.
  -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긴다면, 진지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오락의 원천으로 전락하게 됨.
- ② 서로 다른 규칙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그 규칙이 경기의 질을 높이든지 떨어뜨리든지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 야구에서 지명 타자 제도: 야구의 질을 높인다는 견해도 있고, 전략의 복잡성을 없앴으로 경기에 해를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함.
  - 지명 타자 논쟁은 궁극적으로 야구의 텔로스에 관한 것임. (대학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 논쟁)
- ③ '스캘리아'는 골프에 '텔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 논란에서 영예의 측면을 완전히 놓치고 있음.

● 골프 카트 논쟁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 ⇒ 겉으로는 공정성 논쟁이었음.
  - 카트 이용 시 '마틴'이 불공정하게 유리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에 '마틴'의 장애를 감안하면, 카트 허용은 단지 대등한 대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치라는 것임.
- ⇒ 하지만 공정성이 논란의 핵심일 뿐이라면 해결책은 쉽고 확실함.
  - 경기에서 모든 선수에게 카트 이용을 허용하면 되기 때문임. (공정성 논란은 사라짐)
  - 이 해결책은 프로 골프에서는 질색할 일이며, 마틴에게만 허용하는 것 보다 더 생각할 수 없는 대안임.
- ⇒ 이 논란은 공정성 논란인 동시에 그 보다 더욱더 영예와 인정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임.
  - 골프가 운동경기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PGA와 정상급 선수들의 욕구가 반영된 논란임.

● 문제의 핵심을 최대한 정교히 들여다보면...

- ⇒ 골프선수들은 경기의 지위에 다소 민감함.
    - 훌륭한 선수들이 받게 될 영예를 인정받으려면 이 스포츠가 힘든 육체적 대결이 있는 경기로 보여야 함. 카트를 타면, 운동선수로서 인정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음.
- (최고 선수들이 카트를 타고 할 수는 없으며, 카트를 이용하려는 '마틴'의 시도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

● '케이시 마틴'의 카트 사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 ⇒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흔히 사회 기관의 목적, 그 기관이 배분하는 재화, 그리고 그 기관이 포상하고 영예를 수여하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 이러한 문제에 최대한 중립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한 논쟁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임.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팀 켈러 지음 / 최정훈 옮김 -

part two

사랑과 정의는 입 맞출 수 있는가

8. 모두의 살롬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으라

2016. 12. 10(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

##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 8. 모두의 살롬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

: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라

성경의 정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실제적이지만 또한 고상하고 놀라움.

공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의 핵심임.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위대한 사역의 결과로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과 화평하게 됨.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임.

#### 하나님의 예술 작품

- ▶ 고대 설화의 공통점(중국, 아프리카, 노르웨이...)
- 서로 대립하는 강대한 세력들이 갈등을 빚은 결과로 물질계가 생겨남.
- ▶ 성경의 창조론은...
- 스스로 섬기는 주님께 필적할 만한 그 어떤 신적 세력도 상정하지 않았음.
-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이루신 역사일 수 밖에 없음.

#### 집을 짓고 옷감을 짜듯이

- ▶ 건축적인 이미지를 빌려다가 창조를 설명함
- 평등, 질서, 조화를 부여하는 것임.
- ▶ 옷감 짜는 작업으로도 설명함
-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하심.(공동체를 구성)
- 이렇게 서로 얹힌 관계를 살롬, 화평이라고 부름.

#### 살롬을 잃어버린 세상 (Why?)

- ▶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
- 하나님과 소원해진 탓에 진정한 자아는 물론 다른 이들과도 멀어졌음.
-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살롬이 실종되고 만 것임.

#### 살롬을 이루다

- ▶ 살롬은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완벽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을 통틀어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킴.
- 공동체는 함께 번영을 누리며 사회적 살롬을 이룸.

#### 살롬을 이루기 위한 정의 (How to~)

- ▶ 어떻게 해야 할까?
- 돈과 시간, 능력을 이웃들의 삶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간직한다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옷감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없음.
- 다시 살롬을 직조해 내는 일은 곧 시간과 재물,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이리저리 꿰매고 묶고 밀어 넣는 작업임.
- 강자는 약자를 위해, 다수는 소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약화되고 사회라는 옷감은 찢어지게 마련임.

####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공의를 낳는다

- ▶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길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음.
-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에 기꺼이 나설 뿐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흠족하게 한다는 사실자체로 행복감을 느낌.

#### 가난한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 ▶ 잠언 19:7과 14:31은 방대한 성경구절을 압축한 말씀임
-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분께 친절을 베풀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임.
-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나 진배없이 여기시겠다는 것임.
- 망가지고 상처입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산을 덜어 베풀기를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하심.(바로 나 자신이 책임자임)
-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 새번역)
-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다 파산한(마5:3)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빛을 청산하셨음.
-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공의를 베푸는 삶은 진실하고 복음을 믿고 좇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임.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지음 / 최종훈 옮김

## 8. 모두의 살롬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

: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라

### 📖 Key Word 📖

성경의 정의 개념, 포괄적, 실제적, 고상함, 놀라움, 공의, 역사 속에서, 화목, 화평, 창조, 독점적으로, 혼돈, 질서, 관계의 중요성, 살롬, 조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 ☞ 성경의 정의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실제적이지만 또한 고상하고 놀라움.
- ☞ 공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의 핵심임.
- ☞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위대한 사역의 결과로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과 화평하게 됨.
- ☞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임.

### ■ 하나님의 예술 작품 ■

#### ⇒ 고대 설화들의 공통점

- 중국, 아프리카, 노르웨이, 바빌로니아... 등 대다수 고대 신화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강대한 세력들이 갈등을 빚은 결과로 물질계가 생겨남.

#### ⇒ 성경의 창조론은 전혀 다름(성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 Gerhard von Rad')

- 주변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스스로 섬기는 주님께 필적할 만한 그 어떤 신적 세력도 상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창조는 경쟁자 없이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이루신 역사일 수밖에 없음.
- 참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하는 용사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드는 예술가로서 천지를 지으신 것임.

## ■ 집을 짓고 옷감을 짜듯이 ■

⇒ 성경은 더러 건축적인 이미지를 빌려다가 창조를 설명함.

- “이는 우주에서 파괴와 혼돈의 힘을 제거하고 평등과 질서, 조화를 부여하는 것임.”  
(유대인 학자 ‘모세 바인벨트’)

⇒ 옷감 짜는 작업으로도 설명함.

-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셨으며,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를 옷감으로 만드셨음.
- 수많은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얹혀 한 폭의 천이 나오는 것과 같이 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는 옷감의 비유가 적절함.
-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음.
-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은 공동체를 구성하게 됨.
- 성경은 그렇게 서로 얹힌 관계를 샬롬(shalom), 또는 화평이라고 부름.

## ■ 샬롬을 이루다 ■

⇒ ‘샬롬’은. 보통 평화로 번역되지만, 원어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음.

- 이 말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완벽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을 통틀어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킴.

⇒ 내면에서 심리적이 샬롬이 해체되는 경우.

- 흔히들 죄책감이 든다거나, 갈등을 느낀다거나, 걱정스럽다고 표현하는 상태.

⇒ 사회적 샬롬.

- 조지 베일리의 신용대출 회사 운영 사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공동체와 고객들이 성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경영 원칙으로 삼음.
- 조지 베일리는 돈에 쫓돌리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려는 마지막 순간, 조지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됐을지 실감나게 해 주는 환상을 보게 됨.(가난하고 엉망진창의 마을)
- 조지 베일리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마을 전체가 사회적 샬롬을 잃어버릴 뻔했음.
- 구성원들이 자원을 서로 나누고 협력하며,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환경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전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사회적인 샬롬을 경험함. (공동체는 함께 번영을 누리며 사회적 샬롬을 맛볼 것임)

## ■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 ■

⇒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림.

- 총체적인 파국을 맞았음.
-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훼손하고 망가뜨렸음.
- 하나님과 소원해진 탓에 진정한 자아는 물론 다른 이들과도 멀어졌음.
- 원초적인 이기심은 엄청난 사회악을 불러왔음.

⇒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

-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샬롬이 실종되고 만 것임.

## ■ 살롬을 이루기 위한 정의 ■

⇒ 일반적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 인간이 행복해지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킴.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살롬의 옷감이 찢어진 자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추락하는 자리로 가서 구멍을 메우는 걸 뜻함.(가난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함)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돈과 시간, 능력을 이웃들의 삶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간직한다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옷감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없음.
- 다시 살롬을 직조해 내는 일은 곧 시간과 재물,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이리저리 꿰매고 묶고 밀어 넣는 작업임.

⇒ 공동체 전체가 공의를 행하고 살롬을 추구한 사례

-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한다.」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함.
- '마서 빈야드' 섬 주민의 사례: 섬 주민의 25%가 유전적 청각장애를 가진 마을.
- 대다수 사회에서는 신체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건강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를 강요하는데, '빈야드' 섬에서는 다들 수화를 사용함.
- 오히려 먼 거리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점까지 있음.(오히려 수화가 이익이 됨)
-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함.(대우가 동일함)
- 청각 장애인들도 사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음.
- 공의를 행한(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살롬을 체험한 것임.
- 듣지 못하는 장애라는 인식은 발붙일 자리가 없었음.
- 강자는 약자를 위해, 다수는 소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약화되고 사회라는 옷감은 찢어지게 마련이라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원리가 담겨 있음.

## ■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공의를 낳는다 ■

⇒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길 때...

-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음.
- 예를 들어 남들한테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바흐의 작품을 듣는다면, 음악은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목표, 즉 좋은 평판을 얻는 데 동원된 수단에 불과함.
- 그러나 그저 아름다워서 바흐의 곡을 듣는다면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귀를 기울일 것임.
-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에 기꺼이 나설 뿐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흠족하게 한다는 사실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임.

## ■ 가난한 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

⇒ 잠언 19:7과 14:31은 방대한 성경구절을 압축한 말씀임.

⇒ 첫 번째 본문

-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분께 친절을 베풀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임.

⇒ 두 번째 본문

- 반대로 뒤집어 설명함.
- 즉,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나 진배없이 여기시겠다는 것임.

⇒ 백 원을 베풀면 백 원을 돌려주시겠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필요를 두루 채우시겠다는 가르침임.(막 10:29~31)
- 망가지고 상처입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산을 덜어 베풀기를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하심.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책임자임.

⇒ 더 심각하고 중요한 원칙

- 가난한 이들을 모욕하면 곧 하나님을 욕보이는 셈이 된다는 사실임.
- 잠언에서는 주님은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하셨음.
-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문자적으로 동일시되는 걸 볼 수 있음.(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삶)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정의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과도 하나가 되셨음.
- ‘존 스토르’의 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임.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아픔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 새번역)
-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다 파산한(마5:3)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빛을 청산하셨음.

⇒ 잠언 14:31

-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나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으로 너희 집 문간에 서 있단다. 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나를 대하는 네 속내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겠지.”
-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공의를 베푸는 삶은 진실하고 복음을 믿고 쫓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임.

**모두의 살롬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